

# 연구소 소식

## 육아정책연구소 이영 소장 취임

육아정책연구소는 11월 8일(화) 오전 11시 종로구 안국빌딩 8층에서 제3대 이영 소장의 취임식을 개최하였다. 서문희 기획조정연구실장이 이영 소장의 약력을 소개한 데 이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박영근 사무총장이 축사를 전했다. 그외 내빈으로는 한국교육개발원 김태완 원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재연 원장, (재)한국보육진흥원 이은혜 이사장과 박숙자 원장, 연세대학교 양일선 부총장을 비롯하여 관련 단체 및 학회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하였다.



취임사에서 이영 소장은 유아교육과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성과와 아젠다의 발굴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요구되는 시점에서, 본 연구소가 육아선진국으로 거듭나는 구체적 토양을 만들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영 소장은 미국 밴더빌트대학교 유아교육학 석사, 코넬 대학교 영유아발달전공 박사를 마쳤으며,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인권전문위원, 서울형 어린이집 평가심의위원회, 서울시 보육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대한가정학회 회장, 한국아동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 육아정책연구소 조복희 소장 이임

육아정책연구소 제2대 소장인 조복희 소장의 이임식을 10월 28일 오후 2시 육아정책연구소 회의실에서 가졌다. 조복희 전 소장은 이임사를 통해 본 연구소가 육아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충실히 하여 대내·외적으로 국가 육아정책 연구 선도 기관으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했음과 구성원들의 열성과 협조로 목표한 바를 달성한 것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 「영차」 프로젝트 정책세미나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10월 24일(월) 오후 2시 서울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2009~2011 영차프로젝트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연구소 문무경 선임연구위원과 황해의 부산대학교 교수가 지난 3년 간 추진해 온 유아교육·보육 협력사업(영차프로젝트) 추



진 경과와 성과,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하였고, 전국 3개권 시범지역에서 영차프로젝트를 수행해 온 어린이집-유치원 협력상의 운영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또한 지원체계 차원의 유보협력 사례에 관해서는 강원도청의 배만길 보육지원팀장, 강원도교육청의 김명희 장학사, 부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의 이수복 원장이 발표하였다. 토론에는 박경자 연세대학교 교수, 김영옥 전남대학교 교수가 참여하였으며, 이 외에도 16개 시·도 유아교육 및 보육 담당 공무원, 전국 보육정보센터장과 유아교육진흥원장, 학계 전문가,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 등 약 250여명이 참석하였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는 시범사업 참여기관 중 우수한 협력기관 세 쌍을 선별하여 시상하고 시범사업에 기여도가 높은 지원체계 관계자에게도 공로상을 수여하였다.

## 제6차 육아지원정책포럼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11월 4일 오후 3시 본 연구소 10층 회의실에서 제6차 육아지원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김은설 연구위원은 '보육교직원의 효율적인 보수교육 추진체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최윤경 부연구위원은 '보육교직원 보수체계 개선 방안 연구'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였다. 토론에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김학진 사무관, 한국보육진흥원 인력개발국 김의향 국장이 참여하였다. 이번 포럼은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과 급여체계 개선에 대한 논의의 자리가 되었다.